



## [낙농경영] 콩과 식물사료, 젖소의 질소 배출량 절감에 도움

- 알팔파 등 콩과 식물 급여로 사료비 절감 및 원유생산량 증가에도 도움



환경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유생산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콩과 식물과 저단백 보충제로 젖소의 질소 배출량을 줄이고 원유생산비는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의 하퍼 아담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붉은 토끼풀(Red Clover), 알팔파 등 천연 식물성 고단백을 함유한 콩과 식물을 젖소에게 급여했을 때 소변의 질소 함량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콩과 식물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별도 단백질 보충제 급여가 필요 없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꼽히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소 함량도 줄어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낙농업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16%까지 줄이려는 영국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론 주사료로 사용되는 대두 구입비용을 리터당 약 1펜스(15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2월 2일자 >

## [지속가능] 다논 캐나다, 플라스틱 사용 절감 위한 협약에 동참

-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협약 동참



캐나다가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플라스틱 협약 네트워크에 10번째 국가로 참여한 가운데, 다논 캐나다지사가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영국 엘렌 맥아더 재단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협약(The Plastic Pact)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현재 캐나다를 포함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등 1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논은 엘렌 맥아더 재단에 가입해 천연자원을 보존함은 물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데 이어 2019년 캐나다지사는 자국내 순환 플라스틱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재질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캐나다가 플라스틱 협약에 동참함에 따라 다논 캐나다지사도 협약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다논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업무전략인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건강(One Planet, One Health)’ 목표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perishablenews.com, 1월 27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